

# 현대불교

지역 오로지 전문 수제 떡집을 운영하고 있는 **지리산 떡집**

지리산 아생차로 만듭니다

- 동원유전무지방 한국전통떡집업 사립제
- 우리 차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생산자 보호(명칭) 소비자 지원제

0595) 83-9665 / 83-3478

고객을 위해 서비스는 평생 **빅만평생통장**

- 이자가 오르면 로또급으로 대입해드립니다
- 고객에게 수혜적인 영수증발급
- 노후생활자금 등 다양한 대출서비스 제공

문의전화: 090-023-4000

국민은행

명예회장: 노태환/ 발행인 겸 편집인: 김공삼/ 논설고문: 고은/ 편집국장: 최정희/ 인쇄인: 김규식/ 등록번호: 다-3379/ ©110-170 서울시 중로구 건지동 110-33/ 대표전화: 737-8881 / 편집국: 722-4162 FAX: 737-0698 / 광고국: 737-0692 / 구독신청: 737-0693

구독료: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39년(서기 1995년) 7월 26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금주의 법구**

일부분만을 보는 사람들은 바른 이치에서 어긋난 것에 집착하여 경문을 받는다. (이합경)

**법회 안내**

조계사 (02)732-2115

신도회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관음회법회 매주 토 오전11시  
반야회법회 매주 금 오후7시  
왕산회법회 매주 일 오전11시  
대야회법회 매주 토 오후3시  
흥운사 (02)822-1990

초하루법회 매주 일~3(3일)  
지장대안법회 매월15일~18(3일)  
가림법회 매월 1~3주 토 오후7시  
대구 은혜사 (053)653-1572

산악도 및 108화엄장엄회  
매월 1~3(3일) 오전9시30분  
거사법회 매월 1~3주 수  
오후7시30분

장안회법회 매주 일 오후7시  
고동부법회 매주 일 오후3시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대구 관음사 (053)421-3700

팔만법회 매월 9일 오전10시  
바보법회 매월 18일 오전10시  
청년회법회 매주 토 오후7시  
중·고학생회 매주 일 오후3시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1시  
대구 구도회 (053)654-8533

수요경전법회 수 오후7시30분  
토요경전법회 토 오후8시  
월요일법회 매월 마지막 일  
영·아침법회 매월 둘째 일  
중·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대구 권덕원 (053)741-0077

경기법회 매주 금 오전11시  
거사법회 매월 첫째주 금  
셋째주 일 오후8시  
장년회법회 매주 수 오후8시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 법회안내를 원하시는 사찰·포교당은 전화(722-4162) 팩스(737-0688)로 연락바랍니다.

구독료납부 은행지부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 중앙박물관 경내 탑등 불교계로 돌아온다

### 불상등 50여점 승가대로 이전 추진

국립중앙박물관 경내의 탑, 불상, 부도, 비 등 성보문화재들이 불교계에 돌아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중앙승가대학(학장 송산스님)은 국립중앙박물관 외곽과 지하 수장고에 소장돼 있는 성보문화재의 위탁관리와 관련한 실무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움직임은 중앙승가대와 문화체육부 중앙승가대 및 문화체육부 국립중앙박물관 주변의 불탑과 부도, 지하 소장품 50기 정도의 성보문화재를 옮긴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또 중앙승가대는 이를 위해 정부로부터 위탁받을 수 있는 문화재목록과 요청서 및 야외박물관 조감도를 설계중에 있다.

조계종 총무원도 진작부터 거론돼 왔던 이들 문화재의 불교계 위탁작업을 이달말 구성될 성보문화재 보존위원회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문화재관리국 유형문화재과와 한 관계자는 "전문적인 문화재 보존대책 수립과 공식적인 발송을 불교계의 적극적인 노력이 뒷받침된다면 불교계가 위탁관리 하는데 실무자들은 전방적인 의견의 일치될 보이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주한 미얀마대사관 민민씨(Myint Myint Kyi) 주재관이 '우리는 불자가장' 스티커 붙이기 운동에 동참. 주한 미얀마 대사관도 '불자가장'의 일원이 됐다.

## 미얀마 대사관 동참

"우리는 불자가장. 나와 이웃과 자연은 하나" 스티커 보급이 주한 외국인 대사관으로 확산되면서 해외 불교국가들의 동참이 기대되고 있다.

**스티커 붙이기 동참자**

천매이상: △영등포구 통혜사 △자현암(주지 해항) △안양원(주지 안경우) △용현사(주지 두성스님) △경남 묘관음사 포교원 천매이하: △공명사(주지 석세일) △대한불교법사회 △여시이문 △흥선사(주지 양국) △노원구 사천왕사 △성원정사(법사 함영운) △미얀마대사관 △스리랑카 대사관 △일본대사관 △중국대사관 △태국대사관 △인도대사관 △순봉영 △김경면 △이용관 △고령호 △손두연 △김경석 △박길준 △김경옥 △이상경 △이상규 △이종복 △강산화 △한명희 △김정숙 △김한섭 △최병만 △김경순 (무순)

**동행금 합계제외 안내**

국민은행 023-25-0007-617  
에 금주 현대불교신문

전 화 737-8881, 722-4162  
팩 시 737-0698

현대불교 · 한국불교종단협의회 · 대한불교진흥원



**"극락왕생 하소서"** 19일 오후2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열린 '삼중 희생자 합동 위령제'에는 유가족 1백500여명,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 학예 진각종 총무원장 등 종단대표들과 조순 서울시장 서석재 총무처장관 황영수의원등 1천여명이 참석했다. 불자들은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빌며 드시는 이력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회 안전에 대한 책임의식을 높일 것을 다짐하면서 28일간의 참회기도 입재에 들어갔다. (관련기사 15면). (사진=박재환 기자)

## 성보전시관 건립 대책위 구성

### 19일 주지회의... 목적작성·예산확보 결의

성보전시관 건립에 관해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 학예 진각종 총무원장 등 종단대표들과 조순 서울시장 서석재 총무처장관 황영수의원등 1천여명이 참석했다. 불자들은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빌며 드시는 이력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회 안전에 대한 책임의식을 높일 것을 다짐하면서 28일간의 참회기도 입재에 들어갔다. (관련기사 15면). (사진=박재환 기자)

## 월주스님 방북 불투명

### 北 '15일까지 초청장 보내겠다' 약속어겨

월주스님의 방북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북측이 보내기로 했던 월주스님 방북초청장이 예정 시한인 15일이 지난 현재(7월20일)까지 도착하지 않음에 따라 월주스님 방북은 당분간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근시일내 초청장이 온다 하더라도 방북시기가 북한의 8·15대민족회의와 통일대추전과 겹쳐, 정치성을 배제한 순수 종교교류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월주스님과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시기적으로 다소 늦더라도 순수교류차원의 초청장을 보내는 경우, 월주스님은 언제라도 방북할에 오를 것이라고 밝히 종교지도자 최초방북의 한가 다 희망은 남아 있는 상태.

## 세상에서 으뜸가는 재산

가. 차라리 '내통영'이 되고 싶어서'라고 말하는 편이 훨씬 진실에 가까울텐데... 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한 '마지막 봉사'가 그 길에는 없는 것인가...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자만과 독선적인 모습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까지 믿을 수 있을 것인지 착잡할 따름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보통 50~70%가 그의 복귀를 반대

하고 있다. 50~70%대가 복귀를 강요하더라도 재산 손실을 삼가는 것이 약속을 존중하는 지도자 자세일텐데... 먼저 정치의 믿음(信)부터 세우라고 말하고 싶다."

"...아무리 훌륭한 명분을 제시한다 할지라도 지도자로서 일관된 소신과 정직의 가치를 결코 소인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중씨 재등장에 대한 일간지의 사실과 시론은 한결같이 약속과 믿음 그리고 정직을 강조하면서 '나'를 내세운다고 비판했다.

왜 그랬을까. 부처님의 가르침 '숫타니파라'에서 그답을 들어본다. "이 세상에서 사람에게 으뜸가는 재산은 무엇일까요. '믿음'이 으뜸가는 재산이다."

**본사 사령**

남 수 미

조사지료부 기자 (7월1일자)

**무더위 이기는**  
**禪이득** 12년

**박승현 기적의**  
**생환 드라마** 16년

**KIA** 기아자동차 94, 95 2년 연속 환경관리 모범업체

## 엄청난 프레임이 숨어있다!



프레임은 안전의 기본. 어떤 승용차에도 이런 프레임은 없습니다. 프레임은 바로 차체의 골격! 충돌시 내부에서 차체를 버티줌으로써 찌그러짐·비틀림을 최소화하여 탑승자를 1차적으로 보호해주므로 프레임이야말로 안전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지는 충돌 안전성 충격 흡수력이 탁월한 2중 구조의 특수 강철 프레임으로 특히 오프로드에서 진가를 발휘합니다. 높은 고개길이나 험한 산길도 울퉁불퉁한 스포티지로 달려보십시오. 이젠껏 보던 것보다 훨씬 싱그럽고 생동감 넘치는 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스포티지를 본격 RV(Recreational Vehicle)라 부르는가?**

RV란? 승차권 비즈니스 레저 등 자동차에 대해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 소비자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다목적 자동차로 우리나라에서는 스포티지가 최초의 RV 고수모델입니다. 세계 유명 모터쇼에서도 선전 에이전티들이 앞다투어 새로운 RV모델을 선보이는 등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 충돌안전성이 뛰어난 고정력강판
- 사본구동 최초 리어 ABS 브레이크(ABS 제지 유선)
- 2차 승계를 막아주는 1월 비탈선
- 고급 승용차용 더블 위시본식 독립 현가장치(전륜)
- 운전자를 보호하는 충격흡수식 벨트
- 도어 임팩트 바 및 논재미 안전도어

70%는 바다를 건너간다.

**Sportage**

2중 구조의 특수 강철 프레임 스포티지의 프레임은 강고 단단한 2중구조의 특수강철 프레임으로, 충돌 안전성 및 충격흡수성이 탁월하여 탑승자의 안전을 적극적으로 지켜줍니다.

정부 규정한 표준연비 및 배출

2000cc 1.8 2000cc 2.0 2000cc 2.4 2000cc 2.8 2000cc 3.0 2000cc 3.5 2000cc 4.0 2000cc 4.5 2000cc 5.0 2000cc 5.5 2000cc 6.0 2000cc 6.5 2000cc 7.0 2000cc 7.5 2000cc 8.0 2000cc 8.5 2000cc 9.0 2000cc 9.5 2000cc 10.0 2000cc 10.5 2000cc 11.0 2000cc 11.5 2000cc 12.0 2000cc 12.5 2000cc 13.0 2000cc 13.5 2000cc 14.0 2000cc 14.5 2000cc 15.0 2000cc 15.5 2000cc 16.0 2000cc 16.5 2000cc 17.0 2000cc 17.5 2000cc 18.0 2000cc 18.5 2000cc 19.0 2000cc 19.5 2000cc 20.0 2000cc 20.5 2000cc 21.0 2000cc 21.5 2000cc 22.0 2000cc 22.5 2000cc 23.0 2000cc 23.5 2000cc 24.0 2000cc 24.5 2000cc 25.0 2000cc 25.5 2000cc 26.0 2000cc 26.5 2000cc 27.0 2000cc 27.5 2000cc 28.0 2000cc 28.5 2000cc 29.0 2000cc 29.5 2000cc 30.0 2000cc 30.5 2000cc 31.0 2000cc 31.5 2000cc 32.0 2000cc 32.5 2000cc 33.0 2000cc 33.5 2000cc 34.0 2000cc 34.5 2000cc 35.0 2000cc 35.5 2000cc 36.0 2000cc 36.5 2000cc 37.0 2000cc 37.5 2000cc 38.0 2000cc 38.5 2000cc 39.0 2000cc 39.5 2000cc 40.0 2000cc 40.5 2000cc 41.0 2000cc 41.5 2000cc 42.0 2000cc 42.5 2000cc 43.0 2000cc 43.5 2000cc 44.0 2000cc 44.5 2000cc 45.0 2000cc 45.5 2000cc 46.0 2000cc 46.5 2000cc 47.0 2000cc 47.5 2000cc 48.0 2000cc 48.5 2000cc 49.0 2000cc 49.5 2000cc 50.0

기본 좋은 뉴스!  
1200만원대 스포티지

- 2.0가솔린(SOHC) ₩12,000,000
- 2.0가솔린(DOHC) ₩12,600,000
- 2.2디젤 ₩12,370,000